

13과 남자와 여자는 달라요

1일	<p>1. 우리 가족 중 남자는 누구고 몇 명인지, 여자는 누구고 몇 명인지, 나의 성별을 자유롭게 대답하도록 합니다. ☞ 우리 가족 중 남자는 아빠, 오빠, 남동생 이렇게 3명이에요. 여자는 엄마와 나 이렇게 2명이에요. 나는 여자예요.</p> <p>2.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어요.</p> <p>[설명] 사람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 중 절정입니다. 하나님이 다른 것들을 창조하실 때는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만족을 표시했지만, 사람을 지으신 후 창조의 모든 것을 보시고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고 표현하셨습니다. 사람을 지으심으로 창조의 완성을 이루신 것입니다.</p> <p>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신 과정을 소상히 기록하셨습니다. 먼저 창세기 1장에서는 사람의 창조에 대해 총괄적으로 설명하십니다. 즉, 사람을 창조하시려는 목적(하나님을 대신해 창조물을 다스리는 것, 창세기 1:26 뒷부분)과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 사람이 가져야 할 특성(하나님의 형상, 창세기 1:26 앞부분)을 설명해주셨고, 창조 후에는 사람이 할 일(창세기 1:28)을 설명해주신 것입니다.</p> <p>여기서 눈여겨보아야 할 것은, 창세기 1장에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신 것만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과 이를 위해 사람이 가져야 할 특성, 사람이 해야 할 일에 있어서는 어떠한 차이도 없다는 것을 말씀으로 드러내십니다.</p>
2일	<p>1.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고, 서로 돕는 짝(배필)이 있어야 하기 때문이에요(창세기 2:18). 그래서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가 부모를 떠나 한 몸을 이루게 하셨어요(창세기 2:24).</p> <p>[설명] 하나님은 창세기 1장 이후 창세기 2장을 통해 구체적으로 사람의 창조 과정을 기록하셨습니다. 이를 통해 남자와 여자를 구별하여 창조하신 것뿐 아니라 우리에게 몇 가지 사실을 더 알려주십니다.</p> <p>첫째,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서로 돕는 배필로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서로에게 필요한 성품과 특성이 있다는 것과, 사람 각각에게는 알맞은 짝이 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창세기 2:18).</p> <p>둘째, 하나님은 창조의 과정으로 가정을 만드셨습니다. 성경은 가정에 대해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을 이루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창세기 2:24).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가 육체적·성품적·정서적 특징이 다르지만, 결혼하여 가정을 이루면서 육체적·영적·성품적·정서적으로 연합하고 배우자를 도우며 살도록 하셨습니다.</p> <p>2. 한 몸을 이룬다는 것은 무슨 뜻인지 자유롭게 대답하도록 합니다. ☞ 남자와 여자가 가정을 이룬다는 뜻이에요,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여 가정을 이룬다는 뜻이에요 등</p> <p>[설명]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다르게 만드셨습니다. 남녀가 연합하여 가정을 이루고, 이 신비를 통해 더 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알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p> <p>3. 가정은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이루는 것이예요(창세기 1:27, 2:24).</p> <p>가정을 이루면 자녀를 많이 낳고 번성하여 온 땅에 사람이 많아지게 해야 해요(창세기 1:28 앞부분). 또 남편은 아내를 자신처럼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을 존경해야 해요(남편과 아내가 서로 사랑하며 사이좋게 지내야 해요).</p> <p>[설명] 처음 가정을 이룬 아담과 그의 아내는 서로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창세기 2:25). 즉, 부부는 서로 부끄러울 것이 없는 관계여야 하고, 부끄러운 일이 생기지 않도록 늘 노력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가정을 통해 사람들이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시고, 땅에 충만하게 하셨습니다. 또 이런 충만을 이름으로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다스릴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p> <p>또 결혼은 남자와 여자가 하는 것임을 설명해주세요. 하나님은 분명히 남자와 여자가 부모를 떠나 가정을 이루도록 하셨습니다. 요즘 자녀 세대에서 동성애에 관한 여러 가지 세태들이 무분별하게 난무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 미리미리 자녀들과 대화하며 휩쓸리거나 흔들리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아기 때부터 자녀들에게 “거짓말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하고 가르치는 것처럼, 미리부터 자녀들과 대화를 나누며 동성을 좋아하는 감정은 극복해야 하는 감정이라고 알려주어야 합니다.</p>



3일

1. 남자와 여자는 무엇이 다른지 자유롭게 대답하도록 합니다.

예 옷을 입는 것이 달라요, 목소리가 달라요, 몸의 생김새가 달라요, 자라면서 몸의 생김새가 완전히 달라져요, 남자는 커서 아빠가 되어요, 여자는 커서 엄마가 되어요 등

[설명] 하나님은 남녀가 합하여 가정을 이루게 하시려고 남자와 여자의 몸을 다르게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남자와 여자는 점점 다른 몸의 특징을 가지고 자라나게 됩니다.

부모님은 자녀들을 지도하실 때, 기존의 성 인식에 따라 자녀들에게 “너는 남자(여자)니까 ... 해야 돼(하면 안 돼)”라고 강조하지 않도록 주의해주세요. 대신 ‘하나님이 남자(여자)는 어떻게 만드셨는지’, ‘남자(여자)는 어떤 특징이 있고, 어떤 기능을 하게 하셨는지’, ‘남자(여자)는 어떤 모습으로 자라가는지’, ‘어떻게 자라갈 때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는지’ 등을 가르쳐주시기 바랍니다.

또 자녀가 자라면서 남자임에도 여성적 성품이 나올 수 있고, 반대로 여자지만 남성처럼 행동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그 자녀에게만 주신 특성입니다. 그러므로 부모의 성 인식에 맞게 자녀를 바꾸려고 인위적이거나 강제적으로 노력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어떤 성품이든 관계없이, 하나님이 남자(여자)로 만드신 나를 잘 인식하고 관리하며 자랄 수 있도록 성경적 관점을 갖게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2. 남자(여자)인 나는 나의 몸을 어떻게 해야 할지 자유롭게 대답하도록 합니다.

예 소중히 여겨야 해요, 나의 몸이 다치지 않고 건강하도록 잘 관리해야 해요 등

[설명]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다르게 만드셨기 때문에, 남자는 남자로써, 여자는 여자로써 몸의 특징을 이해하고 건강하게 자라도록 잘 관리해야 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이 짝지어주시는 배우자를 만났을 때, 부끄러움 없이 기쁘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야 한다는 것을 자녀들에게 가르쳐주시기 바랍니다.

4일

1.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못해서 짝으로 서로 도우며 살게 하시려고요.

2. 나와 다른 성별의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할지 자유롭게 대답하도록 합니다.

예 서로 싫어하는 행동을 하지 않아야 해요, 서로 귀중하게 대해야 해요, 서로 친절하게 대해야 해요, 나와 다르다고 공격하거나 무시하지 않아야 해요 등

5일

1. 남자와 여자가 서로에게 좋은 짝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 자유롭게 대답하도록 합니다.

예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서로 도와줘야 해요, 서로 마음이나 생각을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해요 등

2. 나는 앞으로 어떤 여자(남자)로 자라고 싶은지 자유롭게 대답하도록 합니다.

예 •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남자로 자라고 싶어요, 멋진 남자로 자라고 싶어요, 튼튼한 남자로 자라고 싶어요, 우리 아빠처럼 좋은 아빠가 되는 사람으로 자라고 싶어요 등
•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자로 자라고 싶어요, 예쁜 옷을 입는 여자로 자라고 싶어요, 아름다운 여자로 자라고 싶어요, 우리 엄마처럼 좋은 엄마가 되는 사람으로 자라고 싶어요 등

[설명] 안타깝게도 현재 많은 젊은이들이 사회적, 경제적 압박의 심화로 결혼 자체를 거부하거나 결혼해도 자녀 낳기를 주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을 불신하는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자녀들을 보호하시고 지키십니다. 우리 부부가 어떻게 결혼하고 가정을 이루었는지, 결혼 후 아이를 낳고 양육하는 동안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가정에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시고 인도하셨는지를 자녀가 어릴 때부터 나누어주세요. 자녀가 하나님을 신뢰하여 그분의 뜻에 따라 가정을 이루고 번성하며 살아가는 신앙인으로 세워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14과 모든 사람은 똑같이 소중해요

1일	<p>1. 내 주변에 나와 다른 친구가 있는지, 그 친구를 보면 어떤 마음이나 생각이 드는지 자유롭게 대답하도록 합니다. 예 • 우리 학원에 베트남에서 온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는 나와 피부색이 달라요. 그 친구는 착하고 명랑해서 볼 때마다 즐거운 마음이 들어요. • 우리 반에 몸이 불편해서 휠체어를 타고 다니는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를 보면 힘들겠다는 생각이 들어요.</p> <p>2. 그 친구가 나보다 멋져 보인 적이 있는지, 반대로 내가 더 멋지다고 생각한 적이 있는지 자유롭게 대답하도록 합니다. 예 • 네, 베트남에서 온 친구는 착하고 명랑해서 많은 친구를 사귀는 것을 볼 때 멋져 보여요. • 네, 휠체어를 타고 다녀서 움직이는 것이 힘든 걸 볼 때 내가 더 멋지다는 생각이 들어요.</p> <p>[설명] 한국의 문화는 (인간관계와 도리를 찾는) 유교의 영향을 받은 관계 중심의 문화입니다. 그래서 낯선 사람을 만나면 어떤 공통점이 있는지 찾는 오랜 습관이 있기 때문에, 혈연·학연·지연 등을 매우 중요하게 여깁니다. 이런 문화 습관 속에서 자라나는 우리 자녀들도 여러 가지 이유로 차별을 하거나 당합니다. 그러나 차별은, 인류 역사의 초기부터 언어를 다르게 하셔서 다양한 민족이 일어나도록 하신 하나님의 계획에 반하는 것입니다.</p>
2일	<p>1. • 아름다운 옷을 입고 금반지를 낀 사람에게는 좋은 자리에 앉으라고 하였어요. •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에게는 아무데나 앉으라고 하였어요.</p> <p>2. 차별해서 대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씀해요.</p> <p>3. 내가 겪거나 본 일 중에서 차별이라고 생각되는 일을 자유롭게 적어보도록 합니다. 예 우리 반에 생각이 좀 느린 친구가 있는데 나도 모르게 다른 친구와 달리 무시하고 함부로 대했어요, 휠체어 탄 분이 버스를 타려고 하니깐 시간이 오래 걸리니 다른 차를 타라고 사람들이 화를 내는 것을 본 적이 있어요 등</p>
3일	<p>1. 죄를 짓는 것(하나님의 법을 어긴 것)이라고 말씀해요.</p> <p>2.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시고(창세기 1:27), 우리에게 이웃을 나처럼(자신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레위기 24:18 가운데 부분).</p> <p>3.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어떻게 여기실지 자유롭게 대답하도록 합니다. 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기 때문에 소중히 여기세요. 나는 사람들을 어떻게 대해야 할지 자유롭게 대답하도록 합니다. 예 나는 사람들을 차별하지 말아야 해요, 나는 사람들을 소중히 대해야 해요, 나는 사람들을 친절하게 대해야 해요 등</p> <p>[설명]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고,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해지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녀들에게 차별이 죄의 결과임을 먼저 가르쳐야 합니다. 죄는 사람을 싫어하는 마음을 갖게 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모략하게 합니다(로마서 1장). 그러므로 친구를 차별하거나 사랑하지 않는 것은 죄의 다스림을 받고 있는 것임을 가르쳐야 합니다. 또 차별은 교만의 결과인 것을 가르쳐야 합니다. 교만은 자기중심을 넘어 자신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내 자녀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모의 비열어진 영향으로 교만이 일어나고, 그 결과 다른 사람을 차별하는 일이 생깁니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주님의 말씀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모님은 항상 ‘내 자녀가 가장 중요하다는 생각으로 잘못 가르치고 있지 않은지’ 항상 주의해야 합니다.</p>
4일	<p>1. 나는 사람들을 차별한 적이 있는지, 그때 그 사람의 마음은 어땠을지 자유롭게 대답하도록 합니다. 예 우리 반에 말과 생각이 느린 친구가 있는데, 내 생일 파티에 그 친구만 초대하지 않았어요. 그 친구가 많이 속상했을 것 같아요.</p> <p>2. 내가 사람들에게 차별받은 적이 있는지, 그때 내 마음은 어땠는지 자유롭게 대답하도록 합니다. 예 내 키가 작아서 밥을 적게 먹을 것 같다고 급식실 아주머니가 밥을 너무 조금 주셨어요. 그래서 화가 났어요.</p>
5일	<p>1. 나는 주로 어떤 사람들이 차별받다고 생각되는지 자유롭게 대답하도록 합니다. 예 몸이 약한 사람, 몸이 불편한 사람, 가난한 사람, 겉모습이 다른 사람 등 차별받는 사람들은 무엇이 필요한 사람들인지 자유롭게 대답하도록 합니다. 예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예요.</p> <p>2. 내가 차별했던 친구 중에 도움이 필요한 친구가 있었는지, 그렇다면 앞으로 어떻게 도울지 자유롭게 대답합니다. 예 말과 생각이 느리다고 차별했던 친구가 있었는데 앞으로는 옆에서 잘 가르쳐주며 도와줄래요, 다른 나라에서 와서 한국말을 잘 못한다고 차별했던 친구가 있었는데 앞으로는 그 친구가 잘 말할 수 있도록 도와줄래요 등</p> <p>[설명] 부모님은 자녀가 나보다 못하다고 생각되는 사람이나 친구를 차별하고 무시하고 괴롭히는 말과 행동을 하지 않는지 늘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자녀가 믿음 안에서 건강한 자존감을 갖고 있으면, 자신보다 못한 사람을 불쌍히 여깁니다. 그러나 자녀에게 건강한 자존감이 없을 때, 사람을 차별하고 무시하고 괴롭히는 말과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부모님은 자녀에게 편향된 성품이 있는지 늘 세심하게 찾아 살피고, 자녀의 자존감을 바르게 세워주도록 노력해야 합니다.</p>



15과 선한 말을 해요

1일	<p>1. 우리의 생각이나 마음을 무엇으로 전할 수 있을지 자유롭게 대답하도록 합니다. 예 말, 글, 표정, 몸짓, 수어(청각 장애인), 점자(시각 장애인) 등으로 전할 수 있어요.</p> <p>2. 나는 오늘 누구에게 어떤 말을 하고, 또 어떤 말을 들었는지 자유롭게 대답하도록 합니다. 예 할머니께 “건강하세요. 사랑해요”라고 말했어요, 친구에게 “저리 가! 어찌라고!”라고 말했어요, 친구가 나에게 장난을 치고는 “내가 안 그랬어”라고 거짓말하는 것을 들었어요 등</p>
2일	<p>1. 내가 오늘 했던 말 중에 지금 마음에 남아 있는 말이 무엇인지 자유롭게 대답하도록 합니다. 예 이모가 깜짝 선물을 주셨는데 너무 기쁘고 감사해서 “이모, 정말 감사해요. 너무 행복해요”라고 인사드린 말이 남아 있어요, 친구가 내 셔츠를 망가뜨려서 화가 나서 “야, 이 ×××야!”라고 욕한 말이 남아 있어요 등</p> <p>2. 1번에 적은 말이 왜 내 마음에 남아 있다고 생각하는지 자유롭게 대답하도록 합니다. 예 그 말로 나와 이모 모두 행복해졌기 때문이에요, 친구에게 나쁜 말로 화낸 후 미안해졌기 때문이에요 등 그렇다면 나는 어떤 말을 하도록 노력해야 할지 자유롭게 대답하도록 합니다. 예 좋은 말(바른 말/선한 말/예쁜 말/다른 사람을 격려하는 말 등)을 하려고 노력해야 해요.</p>
3일	<p>1. 불, 불씨, 작은, 큰 손해, 악, 온 몸</p> <p>2. 재갈, 키 / 말과 혀를 다스린다는 것은 무슨 뜻인지 내 생각을 자유롭게 적어보도록 합니다. 예 하나님께 순종하는 말을 하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을 하라는 뜻이에요, 하나님 뜻에 맞는 말을 하라는 뜻이에요, 나쁜 말을 하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뜻이에요, 말할 때마다 조심해서 하라는 뜻이에요 등</p>
4일	<p>1.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고, 듣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는 선한 말을 하라고 말씀해요.</p> <p>2. 말썽을 생각해볼 때, 우리는 어떤 말을 해야 할지 자유롭게 대답하도록 합니다. 예 •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말을 하고, 언제나 조심해서 말해야 해요. • 나쁜 말이나 다른 사람을 홍보는 말, 거짓말을 하지 말아야 해요.</p>
5일	<p>1. 각 사람들에게 내가 할 수 있는 선하고 좋은 말이 무엇인지 생각해서 자유롭게 적어보도록 합니다. 예 • 부모님께: 엄마가 있어서 너무 행복해요. / 아빠, 오늘도 힘내세요! • 형제자매에게: 언니, 나를 도와줘서 고마워! / 동생아, 너도 할 수 있어! • 친구들에게: 너는 정말 좋은 친구야. / 너는 ○○을(를) 정말 잘하는구나!</p> <p>2. 내 입에서 악한 말이 나오려 할 때 어떻게 해야 할지 자유롭게 대답하도록 합니다. 예 잠깐 멈추고 이 말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말(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말)인지 생각해보아요, 하려던 말을 멈추고 하지 않으려고 참아야 해요, 악한 말 대신 선한 말을 하려고 해요 등</p> <p>3. 찬양을 부르며, 사랑과 축복을 담은 선한 말을 하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자유롭게 기도드립니다. 예 하나님, 저는 좋은 말을 할 때도 있었지만 나쁜 말을 할 때도 있었어요. 하지만 앞으로는 사람들에게 사랑과 축복을 담은 좋은 말을 하며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p> <p>[부모님께] 하나님은 사람을 특별하게 창조하시고, 언어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창적 특성으로 언어를 발전시키고, 이를 통해 삶과 문화를 발전시켜나가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다음의 주제로 자녀들과 이야기 나누며, 좋은 언어 습관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p> <p>① 내가 자주 하는 말은? 우리는 말할 때 접속어(그리고, 그래서, 왜냐하면 등), 감탄어(와, 예, 야 등), 습관적 반복어(몰라, 진짜 등) 등을 자주 사용합니다. 가족과 함께 내가 자주 하는 말이 무엇인지 이야기 나누어보세요. 자주 하는 말이 무엇인지 모르겠다면, 다른 가족의 도움을 받으세요. 그리고 왜 그 말을 자주 한다고 생각되는지, 고쳐야 할 점이 무엇인지 서로 찾아봅시다.</p> <p>② 내가 자주 하는 나쁜 말이나 욕설은? 온 가족이 자신이 자주 하는 나쁜 말이나 욕설이 있는지 이야기 나눕니다. 이때 서로 꾸짖거나 화내지 말고 솔직히 이야기할 수 있도록 편안한 분위기를 조성해주세요. 그리고 욕설을 자주 하는 가족이 있다면 왜 그런지 이유를 생각해보고, 욕설을 그만두면 어떤 느낌을 갖게 될지 이야기 나누어보세요.</p> <p>③ 내가 이제까지 들었던 말 중 가장 좋았던 말은? 내가 이제까지 들었던 말 중 가장 좋았던 말은 무엇이었는지, 어떤 상황이었는지 함께 이야기 나누며, 서로에게 좋은 말을 하는 습관을 갖도록 격려합니다.</p> <p>④ 내가 말을 잘못하여 저지른 가장 큰 실수가 있다면? 나는 언제, 어떤 상황에서 말을 잘못하여 큰 실수를 저질렀는지 함께 이야기 나눕니다. 이때도 서로 꾸짖거나 화내지 말고 편안한 분위기에서 솔직히 이야기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또 이야기를 나눈 후에는 평소 생각의 결과가 말로 나온다는 것을 자녀들에게 일러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바로 설 때 좋은 말을 하게 되므로, 늘 마음과 생각을 바르게 지키도록 격려해주세요.</p>



16과 하나님이 만드신 대로 지켜요

1일	<p>1. 우리 집이 쓰레기 버리는 방법을 자유롭게 대답하도록 합니다. 예 우리 집은 분리수거를 하기 때문에 종류별로 쓰레기를 모아 정해진 요일에 버려요, 우리 집은 쓰레기를 봉투에 담고 잘 묶어서 대문 앞 정해진 곳에 쓰레기를 놔둬요 등</p> <p>2. 이렇게 쓰레기를 버리면 어떤 점이 좋을지, 또 어떤 점이 나쁠지 자유롭게 대답하도록 합니다. 예 분리수거를 하면 재활용할 수 있는 것들이 많아서 지구를 좀 더 잘 보호할 수 있는 점이 좋아요, 하지만 일일이 깨끗하게 씻어서 버려야 하니 귀찮은 점이 나빠요 등</p>
2일	<p>1. 보기에 심히(매우) 좋다고 여기셨어요.</p> <p>2. 땅을 정복하고, 바다와 하늘과 땅의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명령하셨어요.</p>
3일	<p>1. 땅이 저주를 받고, 사람은 평생 수고해야 땅의 생산물을 먹을 수 있게 되었어요. 저주받은 땅은 사람에게 가시와 엉겅퀴를 내게 되었어요.</p> <p>2. 땅과 자연이(모든 피조물이) 신음하며 고통당하고 있다고 말씀해요.</p>
4일	<p>1. 내가 본 자연의 모습 중에서 자연이 망가졌다고 생각되는 모습은 어떤 것이 있는지 자유롭게 대답하도록 합니다. 예 바다에 많은 플라스틱 쓰레기가 있어요, 길가에 담배꽂초나 마시다 버린 음료수 컵이 많아요, 공장 근처 냇가에 더러운 물이 흘러들어가서 나쁜 냄새가 나요 등</p> <p>왜 이렇게 자연이 망가지게 된 것인지 자유롭게 대답하도록 합니다. 예 사람들이 자연을 함부로 여기고 소중히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쓰레기를 아무데나 버리기 때문이에요, 내가 편한 대로 자연을 함부로 이용만 하고 돌볼 생각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등</p> <p>2. 하나님은 땅과 자연이 어떻게 되기를 바라실지 자유롭게 대답하도록 합니다. 예 하나님이 처음 만드셨을 때 만족하셨던 모습처럼 회복되기를 바라실 거예요, 사람들이 잘 관리해서 고통받지 않기를 바라실 거예요 등</p> <p>[설명] 사람들이 자연을 고통스럽게 하는 경우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기술 발달과 편리함을 추구하면서 자연을 고통스럽게 합니다.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는 것들은 한편으로는 자연을 병들게 합니다. 예를 들어 석유 자원을 이용하는 것들, 편리한 플라스틱 도구들, 냉난방에 필요한 자원들, 맛있게 먹기 위해 기르는 가축들 등등이 그것입니다. 둘째, 자신의 욕심을 채우려고 자연을 고통스럽게 합니다. 사람들은 자신만 즐거우면 된다는 생각에 자연을 훼손합니다. 쓰레기들, 나무를 함부로 베는 행위들, 산업 및 생활 폐수를 흘려보내는 것 등이 그 예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을 지키는 데에는 우리의 절제와 희생이 필요한 것을 깊이 인식하고, 자연에게 잘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p>
5일	<p>1. 하나님이 만드신 처음 상태로 땅과 자연이 회복되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 3가지를 자유롭게 적어보도록 합니다. 예 ① 쓰레기 분리수거 방법을 제대로 배우고, 잘 실천하려고 힘써요. ② 쓰레기가 생겼을 때 아무데나 함부로 버리지 않아요. ③ 비누나 샴푸 같은 것들을 많이 쓰지 않고 꼭 필요한 만큼만 써요.</p> <p>2. 땅과 자연이 하나님이 처음 만드셨던 때처럼 회복된다면, 사람들은 무엇을 알게 될지 자유롭게 대답하도록 합니다. 예 하나님이 만드신 온 땅과 자연을 보고 놀라서 하나님은 놀라운 분인 것을 알게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다르게 살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을 알게 될 것 같아요, 나도 하나님을 믿으며 살고 싶다고 생각할 것 같아요 등</p> <p>[설명]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방법은, 우리가 하나님이 하신 일을 세상에 드러내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이 지으신 자연을 그분의 뜻대로 돌보는 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p>



17과 우리는 악한 세상에서 살고 있어요

1일	<p>1. 최근에 내 주변에서 일어났거나 내가 겪은 나쁜 일이 있다면 어떤 일인지 자유롭게 대답하도록 합니다. ④ 친구의 아빠가 교통사고를 당하셨대요, 쉬는 시간에 계단을 내려가는데 우리 반 아이가 이유도 없이 나를 밀어서 발목을 다쳐 병원에 다니고 있어요 등</p> <p>2. 우리나라나 세계에서 어떤 나쁜 일이 일어났는지 자유롭게 대답하도록 합니다. ④ 얼마 전 우리나라에서 술 취한 아저씨가 마구 흥기를 휘둘러 많은 사람이 크게 다치는 일이 있었어요, 이웃 나라에서 건물이 무너져 많은 사람이 죽거나 다치는 일이 있었어요, 지금 전쟁하는 나라들이 있어요 등</p> <p>[설명] 죄는 하나님을 닮은 우리의 형상을 손상시켰고, 그로 말미암아 부끄러운 욕심(로마서 1:26)이 사람을 지배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사람은 죄의 다스림을 받아 사람을 해하고 하나님을 등지는 등 악을 행하고 동조하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로마서 1:32). 그러므로 부모님은 자녀들에게 욕심이 일어날 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욕심을 다스리는 사람이 되어야 함을 보여주고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자녀와 일어나고 있는 나쁜 일에 대해 이야기 나눌 때에는, (자녀가 아직은 다면적 판단을 하기는 어려운 연령이므로) 상황에 따라 다른 해석이 일어날 수 있는 일들보다 누가 보아도 나쁜 일이라고 객관적으로 말할 수 있는 일들로 이야기 나누는 것이 좋습니다.</p>
2일	<p>1. 세상과 세상이 하는 일들이 악하다고 말씀하셨어요.</p> <p>2. 불의, 추악(악행), 탐욕(욕심), 악의(악한 생각)가 가득한 모습, 시기, 살인, 분쟁(다툼), 사기(속임), 악독(적의)이 가득한 모습, 수군수군하는(남에 대해 말하는) 모습, 비방하는(헐뜯는) 모습, 하나님을 미워함, 능욕하는(견방진) 모습, 교만, 자랑, 악을 도모하는(악한 일을 꾸미는) 모습, 부모님을 거역(불순종)하는 모습, 우매한(미련한) 자의 모습, 배약하는(약속을 지키지 않는) 모습, 무정한(불친절한) 모습, 무자비한(동정심이 없는) 모습</p> <p>[부모님께] 자녀에게 로마서 1:29-31에 기록된 여러 죄악의 모습 중에 자신이 이해한 것 5가지를 적어보도록 합니다. 자녀가 어려워하면 쉬운 번역본으로 찾아 읽게 해도 좋습니다.</p> <p>3. 죄가 세상에 들어와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된 후(로마서 5:12), 죄가 왕노릇 하며 죄를 따라 살게 했기 때문이에요(6:12). 죄의 종이 된 사람들은 죄를 이기지 못하고 죄의 다스림을 받으며 살게 되었어요(6:20).</p>
3일	<p>1. 네, 나도 나쁜 생각과 행동을 해요. 나에게도 죄가 있기 때문이에요.</p> <p>2. 나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구원받게 해주셨어요.</p> <p>3. 나쁜 생각이나 행동을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나의 죄를 용서받아야 해요.</p>
4일	<p>1. 새 사람이 되어 선하고 거룩하게 살아가라고 하세요. [설명] '거룩'은 '구별', '구분'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거룩하게 사는 것이란, 죄를 따르며 사는 세상 사람들과 다른 모습으로 구별되게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과 구별되게 살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며 하나님을 향해 거룩해야 합니다. 또 선하고 바르게 살면서 세상과 사람들을 향해서도 거룩해야 합니다.</p> <p>2. 에베소서 4:25-29을 읽고, 자신이 고쳐야 한다고 생각되는 것을 자유롭게 적도록 합니다. ④ 거짓말을 하지 말아야 해요, 화를 내지 말아야 해요, 화를 내더라도 해가 지기 전에 화를 풀어야 해요(금방 화를 풀어야 해요), 도둑질을 하지 말아야 해요, 더럽고 나쁜 말을 하지 말아야 해요 등</p>
5일	<p>1. 친구들에게 잘못을 이야기하거나 그 일을 함께하지 않겠다고 말할 때, 친구들은 어떻게 반응할지 자유롭게 대답하도록 합니다. ④ 나한테 화를 낼 것 같아요, 나를 싫어할 것 같아요, 나를 미워할 것 같아요, 나와 놀아주지 않을 것 같아요 등 그럴 때 나는 미움을 받아도 끝까지 견디는 사람을 구원을 받는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하며 잘 견딜 거예요(마태복음 10:22). 또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말라는 말씀을 생각하면서 계속 선한 일을 할 거예요(갈라디아서 6:9).</p> <p>2. 우리가 선하고 거룩하게 사는 모습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기 때문이에요(마태복음 5:16). 또 우리의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는지 이유를 물을 때, 소망이신 예수님에 대해 대답할 수 있도록 준비되기 때문이에요(베드로전서 3:15). [설명] 우리가 선하고 거룩하게 살아야 하는 이유에 대해 자녀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요", "예수님이 기뻐하시니까요" 정도로 대답할 것입니다. 이런 자녀들의 대답을 인정하고 칭찬해주세요. 그리고 우리가 선하고 거룩하게 살아가면 사람들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을 궁금해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는 것을 덧붙여 설명해주세요.</p>



18과 믿음으로 승리해요

1일	<p>[이 과를 시작하기 전에]</p> <p>이번 주 에브리데이를 시작하기 전에, 부모님들께 저희가 이 과를 만든 이유에 대해 설명 드리고자 합니다. 아래 내용을 염두에 두고 자녀를 이끌어주시기 바랍니다.</p> <p>자녀들이 아직은 이해하기 어려울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늘 ‘영적 전투(싸움)’가 있습니다. 즉,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하나님의 방법)에 순종하려는 마음과 내 욕심 사이의 싸움이 있는 것이죠. 우리는 선한 결정이나 행동을 하려 할 때 ‘이렇게 하는 게 맞나?’ 하는 의심이 들 때가 있습니다. 또 ‘다른 사람들은 안 하는데 나 혼자 이렇게 행동하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하는 두려움이 생기기도 합니다. 이 두려움은 다른 사람과의 비교에서 오는 두려움(이질감)입니다.</p> <p>하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이러한 두려움을 주시지 않았습니니다. 또한 영적 싸움은 싸워 이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모님은 평소 자녀들에게 부모님이 어떤 영적 싸움을 하고 있는지 설명하고, 그 과정을 보여주세요. 그리고 자녀들이 영적 싸움을 할 때마다 믿음으로 승리하고 견고하게 설 수 있도록 늘 격려해주시기 바랍니다.</p> <p>1. 하지 말아야 행동이나 하나님 말씀에 맞지 않는 행동을 몰래 한 것이 있다면 검은 칸에 자유롭게 적도록 합니다.</p> <p>예) 부모님과 게임하는 시간을 정했는데 몰래 더 많이 했어요, 문구점에서 갖고 싶었던 연필을 몰래 훔쳤어요, 엄마가 마트에 다녀올 동안 숙제를 하라고 하셨는데 답을 보고 베끼고 TV를 보았어요 등</p> <p>[설명] 자녀가 비록 어릴지라도 자신의 잘못을 솔직히 적는 것이 쉽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검은 칸에 적도록 배려하였습니다. 부모님은 자녀가 적은 잘못을 끝까지 알아내려 다그치거나 꾸짖기보다는, 솔직히 적은 것을 칭찬하고 용서해주세요. 자신의 잘못을 솔직히 고백했을 때 용서받은 경험을 통해 앞으로도 부모님께 잘못을 숨기지 않고 고백하는 자녀로 자랄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도 죄를 숨기지 않고 고백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p> <p>2. 왜 우리는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몰래 하려고 하는지 자유롭게 대답하도록 합니다.</p> <p>예) 우리에게 있는 죄 때문이에요,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을 알지만 그래도 계속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기 때문이에요, 갖고 싶은데 마음대로 다 가질 수 없기 때문이에요, 들키면 혼날 것 같기 때문이에요 등</p> <p>[설명] 왜 어른들이 하지 말라는 행동을 몰래 하게 되는지에 대해 자녀는 단순히 “하고(먹고, 갖고 등) 싶으니까” 정도의 대답을 하게 될 것입니다. 나쁜 것임을 알지만 하고(먹고, 갖고) 싶으니까 몰래 하게 되는 마음은 바로 ‘욕심’입니다. 그리고 욕심 때문에 죄를 짓고는 드러날까 봐 ‘두려움’을 갖게 되어 더욱 더 큰 죄를 짓기 반복합니다. 이것이 죄의 특성입니다(은폐성, 반복성, 확장성).</p> <p>부모님은 죄의 특성을 염두에 두시고 자녀와 죄에 대해 이야기 나누어주세요. 지금이 죄를 불러일으키는 욕심과 죄로 인한 두려움, 눈덩이처럼 커지는 죄의 확장성에 대해 가르칠 수 있는 적기입니다. 또한 바르지(정당하지) 못하지만 하고 싶은 마음, 즉 죄를 짓고 싶은 마음을 참고 이겨내야 한다는 것을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도둑질은 욕심에서, 동성애는 욕정에서 비롯되는 것임을 설명해주고, 죄를 짓도록 유혹하는 욕심은 참고 이겨내야 할 것임을 잘 가르쳐주시기 바랍니다.</p>
2일	<p>1. 사탄은 세상에서 왕 노릇을 하며 사람들이 죄를 짓도록 유혹했어요.</p> <p>2. 나는 어떤 유혹을 많이 받는지 자유롭게 대답하도록 합니다.</p> <p>예) 거짓말을 하고 싶은 유혹을 많이 받아요, 부모님과 한 약속을 어기고 게임을 더 하고 싶은 유혹을 많이 받아요 등</p>
3일	<p>1. 우리의 믿음으로 이길 수 있어요.</p> <p>2.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에요(요한일서 5:5).</p> <p>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마귀의 일(죄)을 멸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고(요한일서 3:8 뒷부분), 세상(죄)을 이기신 것을 믿는 믿음이에요(요한복음 16:33 뒷부분).</p>
4일	<p>1. 하나님을 사랑하며 계명(말씀)을 지켜야 한다고 말씀해요.</p> <p>2. 그리스도(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믿음을 얻게 되는 방법이에요.</p> <p>3.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힘입어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게 되어요.</p>
5일	<p>1. 오늘 내가 받은 죄의 유혹은 어떤 것이었는지 자유롭게 대답하도록 합니다.</p> <p>예) 선생님께 칭찬받는 친구가 질투 나서 홍보고 싶었어요, 컵을 깬데 엄마에게 혼날까봐 거짓말하고 싶었어요 등</p> <p>그럴 때 나는 어떻게 그 유혹을 이길 수 있을지 자유롭게 대답하도록 합니다.</p> <p>예) 친구를 변함없이 사랑하고 친구가 잘되도록 도와주라는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며 이길 수 있어요, 거짓말 하지 말라는 말씀을 기억하고 엄마에게 솔직히 말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이길 수 있어요 등</p> <p>2. 죄의 유혹을 이기는 믿음을 가지기 위해 일주일 동안 내가 실천할 수 있는 일을 적어보도록 합니다.</p> <p>예) 매일 에브리데이로 말씀을 배우고 그대로 살려고 노력해요, 매일 아침에 죄의 유혹을 받을 때 말씀을 기억하며 이길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매일 자기 전에 믿음이 잘 자라도록 기도해요 등</p>



19과 죄를 지으면 돌이켜요

1일	<p>1. 최근에 나는 어떤 죄를 지었는지, 그 죄를 지을 때 내 마음은 어땠는지 자유롭게 대답하도록 합니다.</p> <p>예) 엄마에게 대들었는데 죄송한 마음이 들었어요, 친구를 괴롭히고 싶어 흉을 보고 공격했는데 미안한 마음이 들었어요, 학원에서 컵을 깨뜨리고는 선생님께 혼날까봐 거짓말을 했는데 들릴까봐 조마조마한 마음이 들었어요 등</p> <p>[설명] 자녀가 자신의 잘못을 고백할 때, 꾸짖거나 크게 혼내지 말고 솔직히 고백한 것을 칭찬한 뒤 자녀가 잘못을 반성할 시간을 주세요. 그리고 앞으로는 죄의 행동을 하지 않도록 권면해주세요. 그래야 나중에도 죄를 숨기지 않고 고백하고 반성하는 훈련이 될 수 있습니다.</p> <p>2. 죄는 어떤 것임을 알 수 있는지 자유롭게 대답하도록 합니다.</p> <p>예) 죄를 지은 후에 드는 마음을 보니 죄는 나쁜 것임을 알 수 있어요, 죄는 지으면 안 되는 것임을 알 수 있어요 등</p>
2일	<p>1. 어둠(어둠 속에 사는 사람)이라고 말씀해요.</p> <p>2. 어둠 속에 있을 때는 어떤 느낌이 드는지 자유롭게 대답하도록 합니다.</p> <p>예)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 무섭고 두려운 느낌이 들어요,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 무서워요 등이 느낌은 죄를 지은 후의 느낌과 무엇이 비슷할지 자유롭게 대답하도록 합니다.</p> <p>예) 무섭고 두려운 느낌이 비슷한 것 같아요,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느낌이 비슷한 것 같아요, 잘 모르겠어요 등</p>
3일	<p>1.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고 말씀해요. 그리고 빛의 자녀답게 살라고 말씀해요.</p> <p>2. 빛이신, 말씀</p>
4일	<p>1. 빛의 자녀답게 사는 것은 어려워요. 우리가 악한 욕심에 이끌려 죄의 유혹을 받고 죄를 짓기 때문이에요.</p> <p>2. 내가 주로 짓는 죄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자유롭게 대답하도록 합니다.</p> <p>예) 자랑하는 죄요, 친구의 물건을 탐내는 죄요, 거짓말하는 죄요, 동생을 미워하는 죄요 등</p> <p>3.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 나의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해야 해요(요한일서 1:9 앞부분).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한 뒤, 나의 죄로 피해를 받은 사람에게 가서 용서를 구해야 해요(창세기 50:17 가운데 부분) 그러면 하나님은 나의 죄를 용서해주시고,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해주실 거예요(요한일서 1:9 뒷부분).</p> <p>[설명] 하나님께 회개하고 말씀대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뿐 아니라 자신의 죄로 해를 입은 사람에게도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이웃을 네 자신처럼 사랑하라”, “서로 화목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를 입은 사람에게도 가서 용서를 구하고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의 올바른 순종입니다. 그러므로 부모님은 자녀들이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해를 입힌 사람에게도 죄를 고백하고 용서받아야 함을 반드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p>
5일	<p>1.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것을 세상에 보여주며 살기를 원하세요.</p> <p>2. 하나님께 용서받고 싶은 죄를 검은 메모지에 적고,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드리도록 합니다.</p> <p>예) 하나님, 오늘 무인 아이스크림 가게에 갔다가 돈이 모자랐지만 욕심이 나서 젤리 한 봉지를 훔쳐 오고 말았어요. 나의 죄를 용서해주세요. 그 가게에 가서 돈을 돌려드리고 사과할 수 있는 용기도 주세요. 그리고 앞으로 이런 죄를 짓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p>



20과 걱정과 두려움은 주님께 맡겨요

1일	<p>1. 최근 나에게 걱정되거나 힘들다고 생각되는 일이 있다면 무엇인지 자유롭게 대답하도록 합니다. ④ 학교에서 수행 평가를 봤는데 너무 못 봐서 부모님께 혼날까봐 걱정이예요, 이모가 아파서 병원에 입원했는데 돌아가실까봐 걱정이예요, 놀이터에서 질서를 지키지 않는 친구에게 질서를 지키라고 말했더니 오히려 그 친구가 더 화를 내고 나를 무시해서 힘들어요 등</p> <p>2. 걱정되거나 힘든 일이 계속되었을 때 내 마음은 어떻게 되었는지 자유롭게 대답하도록 합니다. ④ 걱정이 점점 커져서 다른 일을 할 수가 없었어요, 걱정대로 나쁜 결과가 일어날까봐 두려웠어요 등</p> <p>3. 나를 걱정하게 하거나 힘들게 하던 일은 어떻게 해결되었는지 자유롭게 대답하도록 합니다. ④ 걱정과 달리 잘 해결되었어요, 시간이 지나니 저절로 좋아졌어요, 다른 친구들이 도와줘서 잘 해결되었어요 등</p> <p>[설명] 우리 자녀들은 힘든 삶을 살아갑니다. 부모의 기대, 사회의 기대, 행복한 삶, 인간관계, 건강 등 모든 것이 어렵고 힘이 듭니다. 경쟁이 치열할수록 자신감은 없어집니다. 이것을 이기는 길은 자신의 삶을 꾸준히 살아가는 방법뿐이기에, 어려서부터 두려움과 걱정을 마음에 가두어 놓지 않고 부모님과 하나님께 이야기하는 연습과 습관이 필요합니다. 이 과를 진행할 때 부모님은 자녀가 이야기하는 두려움과 걱정을 간섭하거나 꾸중하지 말고 들어주세요. 자녀의 마음을 헤아리며 들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p>
2일	<p>1. 질문을 잘 읽고 디모데의 마음은 어땠는지 자유롭게 대답하도록 합니다. ④ 내가 잘할 수 있을지 걱정되었을 것 같아요, 사람들이 말씀을 잘 가르쳐주지 못한다고 원망할까봐 걱정되었을 것 같아요, 일이 많아서 힘들었을 것 같아요 등</p> <p>2. 걱정하며 일하던 디모데는 자주 아프게 되었어요. 디모데가 왜 자주 아프게 되었는지 자유롭게 대답하도록 합니다. ④ 걱정이 많아져서 자주 아프게 된 것 같아요, 일이 많아 힘들어서 자주 아프게 된 것 같아요 등</p> <p>3.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신 것이 아니라고(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해주었어요.</p>
3일	<p>1. 걱정과 두려움(염려)을 다 주께 맡기라고 말씀해요.</p> <p>2. 걱정하지 않고 감사한 마음으로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구하며 말씀드리는 것이예요.</p>
4일	<p>1.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에요(시편 2:7 뒷부분). 그리고 우리가 걱정하지 않고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필요한 것을 구하며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놀라운 평안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기 때문이에요(빌립보서 4:6-7).</p> <p>2.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다른 평안이에요(요한복음 14:27).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은 우리가 마음과 생각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빌립보서 4:7).</p>
5일	<p>1. 걱정과 두려움을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대로 모든 일을 바꿔주실지 자유롭게 대답하도록 합니다. ④ 다 바꿔주시지는 않을 것 같아요, 다 바꿔주시지는 않지만 나를 도와주실 거예요, 잘 모르겠어요 등</p> <p>2.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바꿔주시지는 않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좋은 것을 나에게 주세요.</p> <p>3.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걱정이나 두려움을 적고, 이것을 맡기는 기도를 자유롭게 드리도록 합니다. ④ 하나님, 사랑하는 이모가 아파서 병원에 입원했어요. 이모가 병이 낫지 않고 돌아가실까봐, 그래서 다시 못 볼까봐 걱정이예요. 하나님, 말씀을 믿고 이 걱정과 두려움을 맡겨요. 이모를 낫게 해주셔서 기쁘게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p>



21과 끝까지 복음을 전해요

1일	<p>1. 내 주변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누가 있는지 자유롭게 대답하도록 합니다. ㉠ 우리 반에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 나밖에 없어요, 친척들이 믿지 않아요, 같은 아파트에 사는 친구가 믿지 않아요 등 그 사람들은 왜 예수님을 믿지 않을지 내 생각을 자유롭게 대답하도록 합니다. ㉠ 예수님을 믿기 싫어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을 어떻게 믿는지 잘 모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에 대해 모르기 때문이에요, 복음을 들어본 적이 없기 때문이에요 등</p> <p>2.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고 진리를 알기 원하시기 때문에(디모데전서 2:4), 우리는 항상 말씀(복음)을 전해야 해요(디모데후서 4:2).</p> <p>[설명] 복음 전도는 단순한 의무 조항이 아닙니다. 작게는 구원의 믿음을 전하는 것이며, 크게는 우리의 모든 행위를 통해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이 복음 전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곧바로 천국으로 데려가시지 않고 이 세상에서 살도록 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으로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을 드러내기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웃을 사랑하고 일평생 소금과 빛으로 살면서 생활을 통한 전도, 관계를 통한 전도에 힘써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 사는 성도의 삶입니다.</p>
2일	<p>1.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말씀(복음)을 전하라고 명령하세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말씀(복음)을 전하라는 말씀이 무슨 뜻인지 자유롭게 대답하도록 합니다. ㉠ 아주 열심히 전하라는 뜻이에요, 언제나 전하라는 뜻이에요, 최선을 다해서 전하라는 뜻이에요, 기회를 만들어 전하라는 뜻이에요, 전도할 방법을 찾아서 전하라는 뜻이에요 등</p> <p>2. 우리는 언제까지 예수님을 전해야 할지 자유롭게 대답하도록 합니다. ㉠ 평생 전해야 해요, 우리가 사는 동안 계속 전해야 해요, 세상 끝날까지 전해야 해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전해야 해요 등</p>
3일	<p>죄인, 십자가, 살아나셔서, 자녀</p>
4일	<p>1. 우리가 복음을 전했을 때, 복음을 받은 사람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날지 자유롭게 대답하도록 합니다. ㉠ 우리와 같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요, 우리와 같이 천국에 가요, 그 사람도 우리처럼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등</p> <p>2. 세상의 빛이 되어 세상을 비추며, 착한 행실로 사는 사람들이 많아져요.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를 보고 하나님을 알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어요.</p>
5일	<p>1. 나는 얼마나 자주 복음을 전하는지 자유롭게 대답하도록 합니다. ㉠ 나는 생각날 때마다 자주 복음을 전해요, 나는 복음을 자주 전하지 않아요, 나는 복음을 전한 적이 없어요 등 내가 복음을 전하는 일을 게을리 한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 자유롭게 대답하도록 합니다. ㉠ 내가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이 싫어하고 화낼까봐 잘 전하지 않아요, 복음을 전할 때 친구들이 놀릴까봐 잘 전하지 않아요, 오늘 전하지 않아도 다음에 전하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잘 전하지 않아요, 어떻게 전해야 할지 잘 몰라서 전하지 않아요 등</p> <p>2. 주변에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중에 가장 빨리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부터 이름을 적어봅니다. ㉠ 내 친구 ○○○, 우리 삼촌 □□□, 이모 △△△ 등 이름을 적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를 달라고 하나님께 자유롭게 기도하도록 합니다. ㉠ 하나님,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항상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고 싶은데 용기가 없고,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몰라서 게을리 했어요. 앞으로 내 친구 ○○○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은데, 잘 연습하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용기와 기회를 주세요. 그리고 복음을 듣는 ○○○가 복음을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p> <p>3. 찬양을 부르며, 복음을 힘써 전하는 사람이 되기로 다짐합니다.</p>



22과 믿음으로 참고 견뎌야 해요

1일	<p>[이 과를 시작하기 전에]</p> <p>부모님! 예수님을 믿으면 모든 일이 잘 풀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도 어려움이 있고, 고통이 있고, 힘든 일이 있습니다.</p> <p>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목적은 행복해지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며, 하나님께 누구인지 알리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것이 그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그리스도인들도 우리와 똑같은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데, 왜 다르게 사는가?’라는 의문을 가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를 위해 어렸을 때부터, 세상의 걱정을 주님께 맡기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또한 주님께서 살게 하신 방법대로 인내하며 사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이 과는 우리 자녀들이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인내하며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인내의 연습을 돕기 위해 기획되었습니다. 이 점을 염두에 두시고 자녀와 함께해주세요.</p> <p>1. 내가 잘못된 것이 없는데도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었던 적이 있다면 자유롭게 대답하도록 합니다.</p> <p>예 친구가 잘못했는데 선생님이 내가 그런 줄 알고 나를 혼내셨어요, 동생이 잘못했는데 동생을 챙겨주지 않은 내 잘못도 있다고 엄마가 나를 혼내셨어요 등</p> <p>2. 그때 어떤 마음이 들었는지 자유롭게 대답하도록 합니다.</p> <p>예 너무 속상했어요, 힘들었어요, 억울했어요, 화가 났어요 등</p> <p>[설명] 모든 사람은 살면서 자신의 잘못이 아닌데도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나만 겪는 것이 아닌, 모든 사람이 겪는다는 점을 자녀에게 잘 알려주세요.</p>
2일	<p>1. 한 사람(아담)을 통해 죄가 세상에 들어온 후, 모든 사람이 죄를 짓게 되었어요(로마서 5:12). 그리고 죄인인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않고 온갖 악한 일을 하게 되었기 때문이에요(로마서 1:28).</p> <p>[설명] 죄가 이 세상에 들어와 세상과 사람들이 망가지게 되었기 때문에 어려움과 힘든 일이 일어납니다. 때로는 다른 사람의 죄 때문에, 때로는 나의 죄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을 잘 설명해주세요. 다른 사람의 죄 때문에 내가 속상하고 힘들 때도 있지만, 나의 죄 때문에 다른 사람도 속상하고 힘든 일을 겪게 될 때가 있다는 것을 꼭 알려주시기 바랍니다.</p> <p>2.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는 고난을 겪는다고 말씀해요.</p>
3일	<p>1. 인내하고(야고보서 1:4),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고 하세요(베드로전서 5:7).</p> <p>2. ‘인내’는 괴로움이나 어려움을 참고 견디는 거예요.</p>
4일	<p>1. 아니요. 하나님은 내 능력 이상의 시험을 당하도록 내버려두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내가 시험을 견디고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을 주시며 도와주세요.</p> <p>2. 열심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아가도록 힘써야 해요.</p>
5일	<p>1. 내가 지금 인내해야 할 일은 어떤 일인지 자유롭게 대답하도록 합니다.</p> <p>예 수업 시간에 화장실을 가고 싶거나 물 마시러 가고 싶은 것을 인내해야 해요, 친구들과 놀 때 차례를 기다리는 것을 인내해야 해요, TV를 보거나 핸드폰을 보기 위해 오늘 해야 할 숙제와 공부를 마치는 일을 인내해야 해요 등</p> <p>내가 자주 인내하지 못하는 일은 무엇인지 자유롭게 대답하도록 합니다.</p> <p>예 부모님과 약속한 시간만큼만 유튜브를 보는 일을 자주 인내하지 못해요, 주말에만 게임을 하기로 부모님과 약속한 일을 자주 인내하지 못해요 등</p> <p>2. 인내는 나를 온전하고 성숙하게 해서 아무것에도 부족한 것이 없는 사람(야고보서 1:4),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받는 순수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되게 하세요(베드로전서 1:7).</p> <p>3. 나는 어려움이 찾아올 때 어떤 태도로 살아야 할지 자유롭게 대답하도록 합니다.</p> <p>예 믿음을 가지고 인내하는 태도로 살아야 해요, 인내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태도로 살아야 해요,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을 믿으며 살아야 해요, 인내할 때 주시는 하나님의 칭찬을 기대하며 살아야 해요 등</p>



23과 약속대로 예수님은 다시 오세요

1일	<p>1. 내가 가장 오래 기대하며 기다렸던 약속은 무엇인지 자유롭게 대답하도록 합니다. 예) 엄마가 내 생일에 친구들을 많이 초대해서 멋진 생일 파티를 해주겠다고 하신 약속이요, 온 가족이 해외 여행가기로 한 약속이요 등</p> <p>2. 약속이 이루어지길 기다리는 동안 어떤 마음이 들었는지 자유롭게 대답하도록 합니다. 예) 너무 설렜어요, 그날이 너무 느리게 오는 느낌이었어요,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떡하나 걱정도 됐어요 등 그 약속이 이루어졌을 때는 어떤 마음이 들었는지 자유롭게 대답하도록 합니다. 예) 너무 기뻐서 하루 종일 웃음이 났어요, 오늘이 계속되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등</p>
2일	<p>1.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라는 약속을 해주셨어요.</p> <p>2. 하늘로 올라가신 모습 그대로 오실 것이며(사도행전 1:11), 예수님의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하늘로부터 내려오신다고 하셨어요(데살로니가전서 4:16 앞부분).</p> <p>3. 네, 쉽게 알 수 있어요. 아니요. 그 사람은 다시 오신 예수님이 아니에요.</p>
3일	<p>1. 예수님이 언제 다시 오시는지 아무도 몰라요. 오직 하나님만 아세요.</p> <p>2.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영원히 형벌을 받고, 의로운 사람들(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영원한 생명(천국)에 들어가게 되어요.</p>
4일	<p>1. 나의 일을 돌아보고 정성(최선)을 다하며 살아야 해요.</p> <p>2.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지금 실천할 수 있는 일 3가지를 자유롭게 적도록 합니다. 예) 친구에게 예수님을 전해요, 하나님을 더 잘 알기 위해 매일 에브리데이로 말씀을 공부해요, 매일 찬양을 부르며 하나님과 가까워지려고 힘써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지 매일 생각하도록 노력해요 등</p> <p>[설명]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와 장소는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다시 오심에만 관심을 갖고 살다 보면,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며 이루어야 하는 목적(모든 일을 주께 하듯 최선을 다하고, 착한 삶을 통해 하나님을 드러내어 복음을 전하며 영광을 돌리는 것)을 행하지 않을 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정하신 것입니다. 간혹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린다면 모든 재산을 교회에 기부하고 교회 안에서만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바른 태도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신 일상에서 성경 말씀을 행하며 사는 것이 예수님을 가장 잘 기다리는 태도입니다.</p>
5일	<p>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어떻게 살아갈지 성경을 찾아 읽고 적도록 합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부를 할 때: 조용히 나의 일을 하고, 내 손으로 일하기를 힘써요(지금 내가 해야 하는 숙제나 공부에 최선을 다해요). 다른 사람을 만날 때: 무슨 일을 하든 마음을 다해 예수님께 하듯 하고, 예수님을 대하는 것처럼 다른 사람을 대해요(예수님을 대하듯 다른 사람을 대해요). 어른이 되어 직업을 갖게 될 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사에 맞는 직업을 가져요.



24과 우리에게 약속된 천국이 있어요

1일	<p>1.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 집에 가셔서 우리가 있을 곳을 마련하시고, 다시 돌아와 우리를 데리고 가서 그곳에서 우리와 함께 있겠다고 알려주셨어요.</p> <p>2. 천국이에요(하나님 나라예요).</p>
2일	<p>1. 천국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성의 빛은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아요. 커다란 진주 1개로 만들어진 성문이 모두 12개가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으로 되어 있어요. 또 하나님과 어린양의 보좌에서부터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이 흐르고, 강 좌우에는 생명나무가 있어요.</p> <p>2. 죽음, 슬픔, 울음, 아픔이 없어요. 이것들이 없는 이유는 천국에는 죄가 없기 때문이에요(죽음, 슬픔, 울음, 아픔은 죄로 인해 생기는 것들이기 때문이에요).</p> <p>[설명] 죽음, 슬픔, 울음, 아픔은 인간이 하나님께 범죄하여 죄가 세상에 들어온 이후 생기게 된 것들입니다. 천국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기 때문에 죄가 있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죄 때문에 생겨난 죽음, 슬픔, 울음, 아픔도 당연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 개념이 우리 자녀들에게는 아직 어려울 수 있으니, 부모님께서서는 자녀에게 정답을 강요하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녀가 할 수 있는 만큼 생각해보도록 이끌어주시고 격려해주세요.</p>
3일	<p>1.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계시기 때문이에요(예수님과 영원히 살 수 있는 곳이기 때문이에요).</p> <p>[설명] 천국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약속해주신 곳입니다. 천국은 완전한 곳입니다. 이 세상에서 부족하고 잘못되고 손상되어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천국에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천국을 사모하는 것은 이 세상을 잘 이기는 방법이 됩니다. 특히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이 손상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아 처음 창조되었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야말로, 지금 이 세상에서 어떤 말로도 표현할 수 없는 완성의 극치가 될 것입니다.</p> <p>2. 예수님과 영원히 함께 산다면 나의 마음은 어떨지 나의 말로 자유롭게 표현해보도록 합니다. 예 너무 행복할 것 같아요, 매일매일 기대될 것 같아요, 매일 기쁠 것 같아요, 매일 감사한 마음일 것 같아요 등</p> <p>3. •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 전에 죽게 된다면: 사람이 죽고 나면 자신이 한 일대로 심판을 받는데(요한계시록 20:12), 어린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은 천국에 가게 되어요(21:27). •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살아 있다면: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예수님을 믿다가) 죽은 사람들과 (예수님을 믿으며) 살아 있는 사람들 모두 구름 속으로 끌어들려져 천국으로 가게 될 거예요(데살로니가전서 4:16-17).</p>
4일	<p>1.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요한복음 1:12) 어린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만 들어갈 수 있어요(요한계시록 21:27).</p> <p>2. 예수님을 믿는 사람,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라고 고백하는 사람</p> <p>3. 나는 천국에 들어갈 것을 믿는지 자유롭게 대답하도록 합니다. 예 믿어요, 안 믿어요, 잘 모르겠어요 등 믿는다면 무엇을 기대하며 살아갈 수 있을지 자유롭게 대답하도록 합니다. 예 천국에서 예수님을 만날 것을 기대하며 살아갈 수 있어요, 아픔이 없는 천국을 기대하며 살아갈 수 있어요, 성경에 나온 사람들을 만날 수 있다는 기대를 하며 살아갈 수 있어요 등 믿어지지 않는다면 왜 그럴지 자유롭게 대답하도록 합니다. 예 왜 믿어야 하는지 이해가 안 가서요, 믿지 않아도 잘 살 수 있어서요, 예수님이 계시다고 생각이 들지 않아서요 등</p>
5일	<p>1. [온 세상에 복음이 다 전파되어야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세상의 끝이 온다고 말씀하셨는데] 아직 온 세상에 복음이 다 전파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p> <p>2. 내가 천국에 함께 가고 싶은 사람은 누구인지 자유롭게 대답하도록 합니다. 예 가족, 친구, 이모, 사촌 등</p> <p>3. 함께 천국에 가고 싶은 사람이 예수님을 모르고 있다면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지 자유롭게 대답하도록 합니다. 예 내가 알고 있는 예수님을 소개해요, 예수님을 알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복음을 전할 기회를 기다려요, 나의 삶으로 예수님의 사랑을 보여줄 수 있도록 착하게 살아요 등</p>

